

## 소비조합 직원이자 현안의 한 당사자로서 얘기 드립니다.

(복지시설 운영에 관해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소비조합 직원과 학교는 **현안과 임금,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에서 공공연대 노동조합에 가입한 소비조합 직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다는 이유로 임금과 협의 안건이 원활하게 조율되지 않고,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대부분이 부결되거나 원안이 없어지는 등의 협상의 장기화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몇몇 직원들은 공공연대 노동조합을 가입한 직원들에게 향후 협상의 목적과 계획에 대해 소비조합 문제의 당사자로서 질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공공연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을 권유받을 뿐 1년 동안 어떠한 응답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조합 직원 내의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갈등은 현재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과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의 고용 문제와 임금에 대해 학교와 별도의 협상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답답한 것은 공공연대 노동조합이 마치 소비조합 직원의 전체 의견을 대변하는 듯 대자보와 언론, 공문을 통해 학교와 학내구성원에게 의견을 호소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시며 학내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셨던 소비조합 직원들의 근무 여건 신장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노조원분들의 노고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간 대외적인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소통 없이 지속되는 소비조합 전체의 의견 대변과 몇몇 의견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학내 구성원 여러분께 직접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 ① 위탁 운영으로 인한 식비 인상에 관해

학교와의 협의 없는 외부 업체의 독단적인 식비 인상은 계약 구조상 불가하다고 봅니다. 또한 오히려 현재 소비조합 직영 운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식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식권 구입가격 5,000원 중 식재료 등의 원가로만 3,350원(67%) 이상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나머지 1,160원(33%)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소비조합 직원의 급여, 사회보험료,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퇴직적립금 등을 모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구조적으로 식비 인상을 하지 않는 한 적자 운영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 ② 위탁 운영 시 관리, 감독에 관해

외부 사례를 들어 학내 구성원 중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면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되는지, 위생적으로 조리되는지 관리, 감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영 운영에 비해 유연하게 대내외 상황에 맞춰 서비스나 품질을 개선하고 다양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③ 시설 투자에 관해

현재 대부분의 소비조합 시설이 마찬가지나 특히 식당은 연식이 오래된 기구(식기세척기, 후드, 국솥, 오븐, 밥솥 등)와 파손된 시설의 보수가 안전상의 이유로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시설 투자는 위탁 운영, 직영 운영의 결정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내외적인 시장 상황을 확인해 봤을 때 대학 시설에 대한 외부 업체의 투자가 회의적이라고 보지만 위탁 운영을 통한 투자 재원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만큼 학내 구성원과 학교 재정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④ 고용에 관해

지난 약 4년 동안 저희 소비조합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의 여러 이슈에도 학내 구성원의 식비 부담 최소화과 복지를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감내하며 직원 각자의 임금과 근무 환경, 복지 혜택의 증진은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내외적인 이유로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고용 안정을 위협 받고 싶지 않으며, 복지 시설 운영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외부 위탁 운영을 통해 전체 구성원의 복지 혜택 유지와 아울러 학교 소속의 직원으로 고용 안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